

2019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9. 6. 24. ~ 7. 14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Shasta college는 캘리포니아 레딩에 위치해 있으며 캠퍼스 크기는 순천향대보다 좀 더 큼니다. 학교안에 농장,공연장,미술관,수영장 등이 있지만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카페테리아, 기숙사, 강의실이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에는 'trio' 라는 고등학생들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과 카페테리아와 커먼스를 같이 이용했습니다. 다들 친절하고 쾌활해서 쉽게 친해졌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코딩을 배웠습니다. 초반에는 교수님께서 템플릿 만드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주시면 따라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고 중간에 놓치거나 모르겠는 부분은 언제든지 손들어서 질문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필드트립을 주제로 파트너 한 명을 정해 둘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중반 이후부터는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코딩이 처음이라 잘 모르고 생소했는데 외국인 친구들이랑 교수님께서 모르는 부분을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잘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수업이 12시에 끝나면 점심을 먹고 1시쯤에 모여서 매일 필드트립을 갑니다. 필드트립은 학교버스를 통해 이동하고 추가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Water works park- 레딩에 있는 워터파크인데 놀이기구랑 파도풀 등 전반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 재밌는 놀이기구 한두개만 타고 나왔습니다. whiskeytown lake- 큰 호수에서 수영도하고 카약도 할 수 있습니다. 카약은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빌려서 탔는데 꼭 타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영복을 챙겨가는 게 편합니다. Sanfrancisco- 아침6시에 출발해 차를 타고 4시간 이동합니다. 시간이 항상 촉박해서 쇼핑 할 시간과 자유시간이 한시간 밖에 없었던 게 아쉽습니다. 미리 쇼핑할 항목을 정해두고 빨리 둘러봐야 합니다. 이외 케이블카를 타고 금문교를 갔습니다. 금문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춥기 때문에 외투를 꼭 챙겨가세요.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기온은 한국보다 더 높지만 습도가 없어서 견딜 만합니다. 하지만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선크림이 항시 필수이고 한국과 달리 건조해 살이 트기 때문에 수분크림이랑 바디로션을 꼭 챙겨가야 합니다. 또한 밤낮으로 쌀쌀할 때가 있고 기숙사 내와 수업하는 교실은 항상 에어컨이 빵빵하고 춥기 때문에 겉옷을 몇 벌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시골 쪽이라 그런지 밤 늦게 놀다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보다 외국인 친구들과 다같이 움직이는게 안전 할 것입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 방은 향설 기숙사보다 넓고 깨끗했지만 샤워실은 한 층에 2개정도 밖에 없어 불편하고 생각보다 더러웠습니다. 세탁 같은 경우 세제는 월마트에 가서 같이 간 학생들끼리 하나 사서 같이 썼고 처음에 빨래 할 때 검정 옷에 먼지가 잘 달라붙었는데 쓰다 보니 괜찮았습니다. 통금은 10시 정도 였는데 형식상인 것 같고 10시 넘는다고 문 잠기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안에 카페테리아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이 너무 짜거나 너무 달아서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월마트 가서 라면을 사와 저녁엔 주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점차 카페테리아 식단도 괜찮아 졌고 입맛도 적응해서 막판에는 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친구들 차를 타고 근처 태국음식점이나 서브웨이, 스시집 등에 가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학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동할 때는 무조건 외국인 친구들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주유비를 줬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생활비(마트)	약30만	

항공	약150만	단체구입
보험	2만8천	
쇼핑,기념품	50만	
합계	약233만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날씨가 밝은 더운데 실내는 너무 춥기 때문에 긴팔,긴바지를 많이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길 때 캐리어에 공간 충분히 남겨둬야 한국에 돌아올 때 짐 싸기가 편합니다. 또한 백팩 이나 다른 여분 가방을 챙겨서 쇼핑해서 늘어난 짐을 위탁 수하물로 붙이면 편합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줄 간식이랑 선물을 많이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날이 되면 프로그램 친구들과 다 친해지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한 명 한 명 다 선물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편지지도 챙겨 가서 마지막날에 편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첫날에 외국인 친구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왜 그런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친구들 이랑 매일 밤 늦게까지 커먼스에서 게임하고 라면 끓여 먹고 수다 떨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3주동안 시간 가는 줄

물랐고 집에 돌아오니 그 생활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 중 3명이 다음학기에 순천향대에 교환학생으로 온다고 해 한국에 오면 같이 여행 가기로 약속했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영어는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3주동안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영어를 쓰는 게 익숙해진 것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3주동안 생활하면서 앞으로 시험점수를 위한 영어 뿐만 아니라 회화실력을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은 방학을 이용해 영어를 꾸준히 공부할 계획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위스키 타운	풀파티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케이블카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볼링 치러간 날